

철학사입문코스Ⅳ

제11강 마음[心]에 대한 성찰

제11강 1교시

◆ 동북아사상의 자연주의

동북아 철학사에서 마음의 문제는 자연주의적 색채를 띠고서 전개되었다.

▲자연주의naturalism

1) 자연을 궁극적인 것으로 보는 것

→자연 바깥에 신이나 영혼을 별도로 설정하는 것을 부정. meta-physical에서 meta를 없애고 physical로 모든 것을 설명함

2) 동북아사상은 근본적으로 자연주의이다.

3) 모든 것을 자연주의로 설명한다는 것은 그것을 모두 氣로 보기 때문

→물질, 생명은 물론이고 마음도 기로 보았다. 귀신도 기의 일종이다. 역사조차도 기로 설명한다.

⇒ 기가 움직이는 방식, 기의 원리는 기 바깥에 있는 것이 아니다.

氣와 道 예) 강물이 흘러갈 때 그 강물은 기이고 강의 흐름은 도이다.

이것은 마음을 氣의 차원에서 보았기 때문이다. 心은 心氣로서 이해되었다.

자연주의적인 사고가 설명해야 하는 것→metaphysical한 것들

메타피지컬한 것들을 따로 설정했다면 그 근거를 대야 한다.→이론적 부담

자연주의를 택할 경우에는 일반적인 물질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설명해야 한다.

자연주의를 택했을 때 나타나는 이론적 부담⇒ 인식, 도덕, 심미성

그러나 『맹자』 같은 책에서 볼 수 있듯이 도덕형이상학적 마음 즉 성(性)의 개념이 사유되기도 했다.

心→경험적empirical 마음

性→선형적metaphysical 마음

<告子와의 논쟁>

고자는 인간의 性은 食色이라고 주장하였다. 하지만 맹자는 경험적 자아 외에 도덕적 자아를 따로 이야기한다. ⇒ **도덕형이상학**

전반적으로 볼 때 동북아 사유에서 心은 인식론적 방식보다는 인성론적 방식으로 탐구되었고, 유심론적 방식보다는 자연주의적 방식으로 탐구되었다.

▲불교의 영향

동북아 사유에서 마음에 대한 고도의 탐구가 시작된 것은 불교와 더불어서였다. 불교의 유심론적(唯心論的) 경향은 동북아 사유에 와서 다분히 실재론적 색채를 가미하게 된다.

불교는 동한 후한 시대에 도래했고 위진남북조 시대에 꽃피기 시작해서 당 시대에 절정에 달하고 송 시대에 쇠퇴한다. 중국에는 대승불교가 전해진다.

나가르주나의 『중론』과 『반야경』→공사상을 가르침. 공사상은 일종의 유심론이다.

⇒ 불교의 유심론에 대한 반발로서 성리학의 실재론적 경향이 대두하게 된다. 성리학의 태두인 주돈이와 장재가 불교의 공(空)에 대해 내세운 것이 기(氣)이다.

철학사입문코스Ⅳ

제11강 2교시

◆ 장재와 정이의 사상

더불어 불교의 돈오(頓悟)를 비판하면서 유교적 학문관[下學而上達]을 복원시키고자 했으며, 또 불교의 비사회성에 대한 격렬한 비판이 등장하게 된다.

▲장재의 사상

장재는 기학적(氣學的) 세계관을 일관되게 전개함으로써(『正蒙』) 이후 성리학사의 기본 골격을 만들어낸다. 그는 太虛로부터의 氣化에 입각해 만물을 이해하고자 했으며, 사물들과의 客感을 통해서 인식을 설명하고자 했다.

感은 스피노자식으로 말하면 modification + affection이다.

modus가 바뀌는 것이 modification이다.

⇒ **물리적인 변양은 반드시 감응과 함께 나타난다.**

“有識有知 物交之客感爾.”

식이나 지가 있으려면 사물과의 교감에서 객감이 있어야 한다.

무어는 is를 아무리 분석해도 그로부터 ought to(해야 한다)가 나오지는 않는다고 보았다.

▶ 참고자료



무어[Moore, George Edward, 1873.11.4~1958.10.24]

서리주(州) 어퍼노어우드 출생. 케임브리지대학의 트리니티 칼리지를 졸업하였다. B.러셀, L.비트겐슈타인 등과 케임브리지 학파를 대표한다. 《마인드 Mind》지(誌)에 발표한 《관념론 논박(論駁)》(1903)에서 관념론을 비판하여 20세기 실재론(實在論)의 선구자가 되었다. 또, 상식과 일상 언어적 표현의 옹호 및 분석적 수법에 의하여 그 후의 일상 언어학파의 동향을 좌우하였다. 《윤리학 원리 Principia Ethica》(1903)에서는 선(善)의 비정의성(非定義性)과 그 자연주의적 오류 등에 대한 문제 제기로 현대 앵글로 아메리칸의 ‘메타 윤리학’의 선구가 되었다. 또한, 특이한 탐미적 공리주의(耽美的功利主義)를 규범윤리(規範倫理)로서 주장하고 있다. 이 밖에 《철학연구》 《철학논문집》 등이 있다.

아울러 견문지(見聞知)과 구분되는 덕성지(德性知)를 강조했는데 데카르트의 본유관념들과는 달리 도덕적 성격을 띤다.

⇒ 장재는 불교와는 달리 인간을 포함하는 객관세계에 대한 기학적 가설에서 출발해 心 역시 기학적 차원에서 이해했다. 인식을 자연주의적으로 설명했으나 덕성지의 개념을 통해서 형이상학적 차원을 확보하고자 했다. 이 두 차원의 연계성이 문제가 된다.

▲정이의 사상

이정(二程) 특히 정이는 장재의 영향을 받았으나 장재의 경험주의적 입장에 불만을 품고 心에 보다 선험적인/형이상학적인 의미를 부여하고자 했다. 정이는 동북아적 실재론에 입각해 있기는 하지만 장재에 비해 유심론적 경향을 띤다. 즉 모든 감응은 결국 마음의 문제로 본 것이다.

⇒ 외부의 사물을 부정하는 불교적인 유심론은 아니지만 심을 채우는 감은 곧 내 마음이라는 것이다. 장재는 이 세계에 대한 객관적인 감을 이야기하고 그 연장선상에서 인식을 말하는데 정이는 불교적 유심론은 아니지만 무게 중심을 마음에 둔다.

“感乃心.”

정이는 외물에 감응할 때 우리 마음이 외물의 理에 상응하는 理를 통해서 知覺이 이루어진다고 보았다.

→여기서의 지각은 perception + conception이다.

예) 내가 컵을 볼 때 내 마음에 있는 컵의 리와 실제 컵의 리가 감응을 하는 것이다.

이 점에서 정이의 지각은 플라톤의 생각과 통하나, 정이가 궁극적으로 간파하고자 한 것은 一理로서의 仁이라는 점에서 다르다.(그러나 ‘선의 이데아’와 비교) 정이는 『중용』의 미발(未發)과 이발(已發)의 구도를 가져온다는 점에서도 유심론적 성향이 두드러진다.

“喜怒哀樂之未發謂之中 發而皆中節謂之和”